

LOCAL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신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 세계에서 '주목'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교육 농산물 경쟁력 강화 등 논의

함평군은 최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플리마켓 교육장에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처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기획생산·구축전략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개장을 앞둔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첫걸음으로, 참여 농업인은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전략을 배우고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로컬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기획생산·출하 전략,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군은 오는 7월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9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중 본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역 내 신선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과 직거래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 해남, 농업인·단체 등 접수

해남군은 2025년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운영, 농업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유통차량 운송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며, 5t 이상 차량을 통해 광주·전남권을 제외한 소비지로 출하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이다.

다만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 쌀은 제외되며, 개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5t 이상 차량 1대당 20만원, 최대 20회 지원하게 된다.

매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유통지원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서류 검토 후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서 햇빛·바람 연금 소개 “주민이 전환의 중심인 정책”...공유 의사 피력

기후위기 대응과 이익공유 등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받고 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신안군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는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ICLED)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기후 행동 회의로, 전 세계 44개국에서 1600여명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 행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이라는 주제로,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재생에너지 경제, 기후 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했다.

군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의 공유제를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극복이라는 2가지 시대적 과제를 아우르는 혁신적 모델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정책 설계다"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몇몇 지방 정부는 신안군의 정책을 자국에 적용해 보고자 적극적인 공유 의사



신안군은 최근 경기도 고양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신안군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를 보내오기도 했다.

군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태 보전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후 정책

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섬 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물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화순 고인돌선사체험장서 시간 여행 떠나세요”

겨울 휴장기 후 운영 재개 불 피우기 등 체험 다채

화순군은 겨울철 휴장기를 마치고 고인돌 선사체험장과 지동마을 민속자료 전시관의 운영을 본격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청동기시대 마을을 생생하게 재현한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약 3000년 전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다양한 도구와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선사시대 도구 만들기, 토기 복원 체험, VR 활쏘기, 불 피우기 체험 등 선사인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마련돼 있어 관광객들에게 뜻깊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만들기 체험은 평일에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현장 접수제로만 운영한다.

함께 운영되는 지동마을 민속자료 전



화순군은 겨울철 휴장기를 마치고 고인돌 선사체험장과 지동마을 민속자료 전시관의 운영을 본격 재개한다. 사진은 선사시대 상석 끌기를 하는 모습.

시관에는 전통 농기구와 생활용품 등이 전시돼 과거 농경문화와 선조들의 일상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도심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문화를 어린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직접 보고, 만들고, 체험하면서 선사시대를 살아본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

하는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예약 문의는 유선 (0507-1434-8848), 네이버톡톡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홈페이지 (@hwasun_dolmen_site)를 통해 가능하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완도, 35억 투입...조림·숲 가꾸기 추진

탄소중립 실현 등 기대

완도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사업비 총 35억원을 투입해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림 사업 규모는 105ha이며 황칠 특화 조림(20ha), 섬 지역 산림 가꾸기(25ha), 경제수 조림(50ha), 산림 재해 방지 조림(10ha)으로 구분된다. 사업비는 15억원을 투입, 지역 고유 난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와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 18만2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완도는 생태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황칠 나무 생장에 적합해 국내 황칠 천연림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등 국내 제1의 황칠 주산지다.

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57억원을 투입, 185ha의 산림에 황칠 특화림을 꾸준히 조성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군외면 일원 20ha의 산림에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20억원을 투입, 880ha 규모의



산림에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한다.

숲 가꾸기 사업의 세부 사업은 조림지 사후 관리를 위한 풀베기·덩굴 제거(570ha)와 어린나무 가꾸기(70ha), 공익 숲 가꾸기(120ha), 산물 예방 숲 가꾸기(120ha) 등이 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고 산물·산사태 재해 예방 기능 증진, 탄소 흡수, 목재 산업 융재 활용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녹색 공간을 확대해 모두가 그 가치를 향유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푸른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zk1831@gwangnam.co.kr

지역맛집 탐방 광주 장어명가 청산 복구점



여름철 기력회복 으뜸

‘국내 1호 무항생제 장어’ 맛보실래요

- ✓ 방사능 수치 등 매년 80여가지 검사 통과 인증
- ✓ 고급 커피나무 참숯에 구워 탱글한 식감 ‘일품’
- ✓ 신선한 국내산 재료 고집...단체 모임 장소 각광



광주 북구 하서로 668 장어명가 청산 복구점
062-571-3692 11:00-21:30